

해외 여행자를 위한 여행사와 관광지 추천 분석

조윤지⁰, 채신록^{*}, 홍은기^{**}, 문유진^{*}

⁰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프리카어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번역전공

e-mail: {whdbswl45⁰, schae^{*}}@hufs.ac.kr, s201703821@hufs-gsuite.kr^{**}, yjmoon@hufs.ac.kr^{*}

Analysis of Tourist Attractions and Tour Agency for Overseas Tourists

Yunji Jo⁰, Sinrock Chae^{*}, Eun Ki Hong^{**}, Yoo Jin Moon^{*}

⁰Studies of East African Lang. and Cultur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vision of Global Business&Technolog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tudies of English Literature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활성화된 해외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지 추천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행객들만이 아닌 여행사들을 위해 여행객들의 정보 역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여행지 상품 수요조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입국 정책은 다양해졌고, 해외여행이 단절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여행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하고, 여행사들은 소비자들의 필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데이터베이스(Database), 코로나-19(Covid-19), 여행 정보(Tour Information)

I. Introduction

코로나의 여파가 줄어들어 국민 해외여행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하고 여행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현재에는 입국 정책의 변화나 각국의 코로나 정책의 변화 등의 문제로 적절한 여행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우리는 유명 여행지들의 정책, 입국 제한 여부 및 치안 순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여행객이 안전 국가를 우선 산출할 수 있게 하고, 그중 희망하는 여행지에 알맞은 여행사까지 산출할 수 있도록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여행자 데이터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여 코로나 상황 전후의 여행객 상황의 모두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관광객의 증가와 국민 해외관광객의 여행 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어 코로나 이후 여행사들의 상품유치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여행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여행지들의 성별, 평균 여비 등을 산출해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하고,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관광상품 정보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치안 정보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1].

1. 다양한 여행지별 여행사 상품 분석

국가별 다양한 여행지와 그 여행지에 대한 여행사별 성수기 여행 상품 가격을 분석했다. 또한 여행지들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최대 4개의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을 찾아 가격과 여행 일수를 기록했다.

2. 여행지별 코로나19 관련 입국정책 및 감염자 수, 여행경쟁력, 안전 순위 분석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각국 코로나19 관련 정책 및 100만 명 당 감염자 비율을 확인하고,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별 여행경쟁력 지수 및 안전 순위 또한 확인하였다.

3. 여행지별 비자 발급 여부 및 시기별 평균 지출금액과 여행자 수 분석

여행지별 비자 발급 여부 역시 확인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비자를 발급 대행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고,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한 국가 역시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소비자들과 여행사들을 위해 달 별 평균 지출금액과 연령대 및 성별별 지출금액 역시 확인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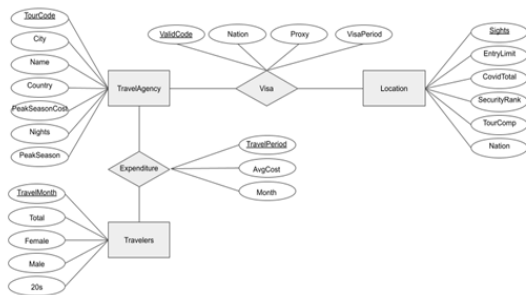


Fig. 1. E-R Diagram of the System

겨울 방학 시즌인 1월과 2월에 장기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20대 대학생들에게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내일투어 6개의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데이터를 제공받아, Fig. 1과 같은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주로 유럽이나 남미 지역 패키지 여행 상품이 일반적으로 7일 이상의 여행일 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중 10일 이상의 일정을 제공하는 여행 상품 지역은 멕시코였으며, 6개의 여행사 중 노랑풍선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상품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균 여비가 일천만 원을 넘어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여행지임을 확인하였다.

국민 해외 관광객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데이터 중 한국인 해외 여행객이 150만 명 이상이었던 시기의 경우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평균 여행 비용은 140만 원임을 파악했다. 이와 반대로 해외 여행객이 50만 명 이하였던 시기는 코로나19 발발과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임을 확인했다. 해당 시기의 평균 여행비용은 1천590만원이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의 평균 여행 비용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의 외국인 입국 금지, 물가 상승 등으로 일반 여행객들의 여행이 어려워져 시간적·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여행객들이 주로 해외 여행을 떠난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한국인 여행객의 체류 가능 기간과 비자 발급 필요성의 유무, 평균 여비에 따른 해외 여행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 가능 기간이 30일 이하이며 평균 여비가 150만 원 이하인 해외 여행지는 하노이, 다낭, 호찌민과 상하이, 베이징으로 모두 한국과 인접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였다. 그 중 베트남의 관광지는 한국인이 무비자로 15일간 여행이 가능하며, 중국의 경우 여행비자 발급 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나 현재 비자 발급이 불가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IV. Conclusions

해당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바탕으로 양방향의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 먼저 사용자에게는 본인의 프로필과 예상 여비, 기간 등의 요구사항에 알맞은 여행지를 추천해 줌으로써 정보를 위해 많은 시간 투자하여 여행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관광지별 여행비자 필요의 유무, 체류 가능 기간, 코로나 발생률, 치안 순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여행 시 준비해야 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행사들은 한국인 해외 여행자들의 성비, 평균 지출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시기별, 성별에 따른 해외여행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쟁사의 상품 정보를 손쉽게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여행 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REFERENCES

[1] Chen, X., Duan, et. al, *Understanding consumer travel behavior during COVID-19*, Sustainability, 13(23), 2021.